Team04 남윤철1, 이승훈1, 장용주1\*

<sup>1</sup>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DGIST

### Introduction

매년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통계분석이란 항목의 경찰(DB)에 따르면, 정확히 2016년도 교통사고의 수는 약 22만건에 육박합니다. 또한 22만건 교통사고에서 약 4400건의 교통사고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저희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교통사망사고 데이터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형태, 사고유형, 날씨, 지역 등 다방면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였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 Street view를 이용하여 직접 도로의 모습을 보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 데이터수집및활용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셋은Google Maps, 기상청, 공공데이터 포털,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2012년~2016년의 교통사망사고의 발생년월, 주야, 사상자수, 발생지시도, 사고유형, 도로형태, 위도, 경도 등의 데이터 나타내는 데이터셋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는 23,191 X 27 입니다.



23,191 X 27

Figure 1. 교통사망사고의 데이터

2. 기상청에서는 2012년~2016년의 지역별 일시, 기온, 강수량, 적설, 시정(가시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는 4,062,575 X 11입니다.

		일시	기온	강수량	적설					시정(가시	기거리)
			_/						L	-	
지점	일시		기온(°C)	강수량(mn	적설(cm)	3시간신적	전운량(10	중하층운링	운형(운형	<sup>9</sup> 최저운고(1	시정(10m)
90	2012-01-0	01 0:00	-0.5		1.6		3	1	ScCi	10	1500
90	2012-01-0	1:00	0.3								
90	2012-01-0	1 2:00	0.3								
90	2012-01-0	1 3:00	0.5		1.6		1	1	Sc	9	1200
90	2012-01-0	1 4:00	0.3		1.6		1	1	Sc	9	1200
90	2012-01-0	1 5:00	-0.6		1.6		1	1	Sc	9	1200
90	2012-01-0	01 6:00	0.4		1.6		1	1	Sc	9	1200
90	2012-01-0	7:00	-1.1		1.6		1	1	Sc	8	1200
90	2012-01-0	1 8:00	0.4		1.6		2	2	Sc	8	1000
90	2012-01-0	)1 9:00	1.3		1.3		2	2	Sc	8	1000
90	2012-01-01	10:00	3.7		1.3		1	1	Sc	8	1200
90	2012-01-01	11:00	4.1		1.3		1	1	Sc	8	1200
90	2012-01-01	12:00	4.2		1.2		3	3	Sc	8	1800
90	2012-01-01	13:00	4.2		1.1		3	3	Sc	8	1800
90	2012-01-01	14:00	3.7		1.1		5	5	Sc	8	1800
90	2012-01-01	15:00	2.8		1		8	8	Sc	8	1800
90	2012-01-01	16:00	2.1		1		8	6	ScAs	8	1200
90	2012-01-01	17:00	1		1		8	6	ScAs	8	1200

4,062,575 X 11

Figure 2. 날씨 데이터

3.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도로유형과 시군구에 대한 데이터로 사건수를 나타내는 교통 사망사고뿐아니라 사망자가 없는 전체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는 1497 X 93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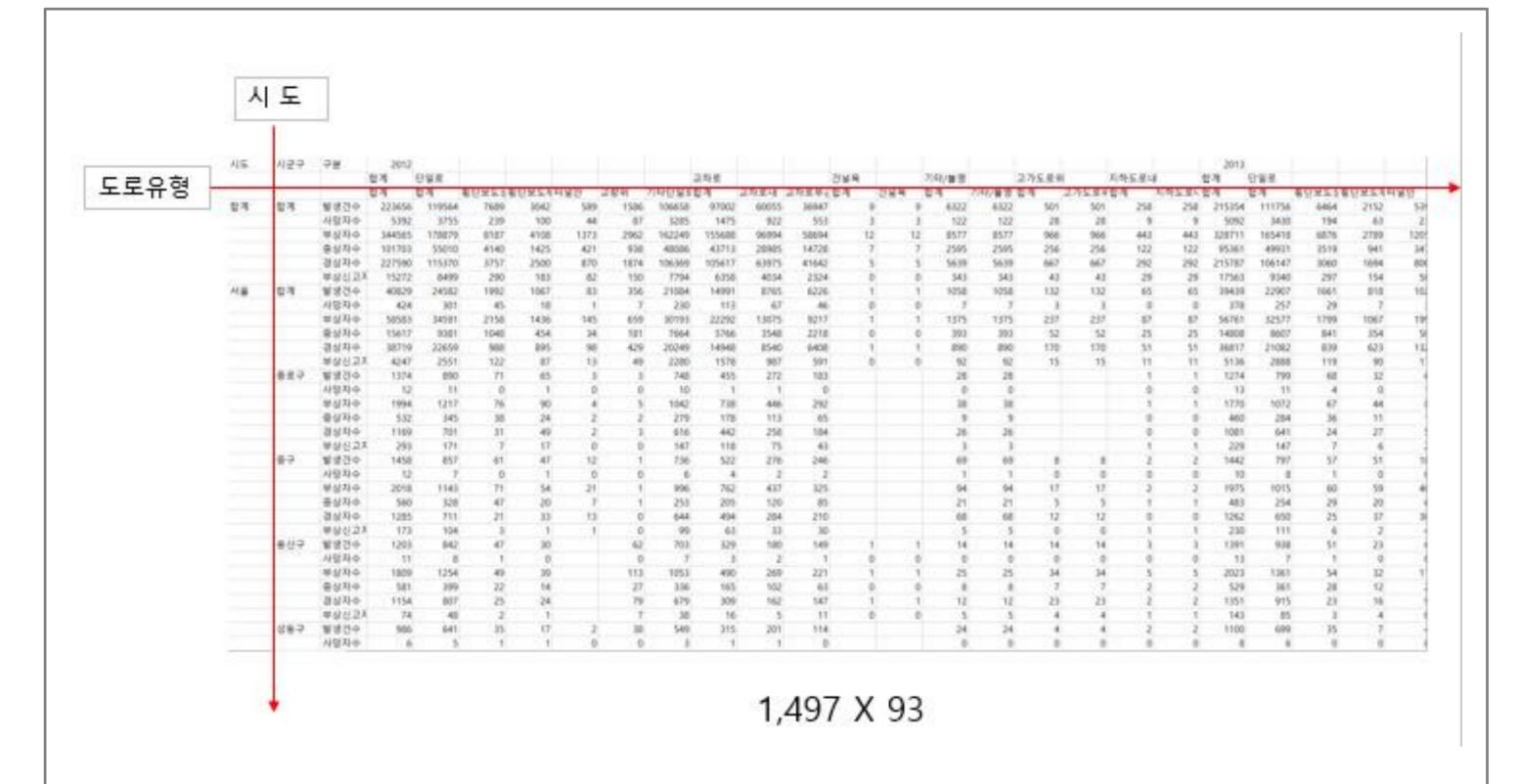


Figure 3. 전체 교통사고수 데이터

4.Google Maps에서는 각 지역에 대한 위도 경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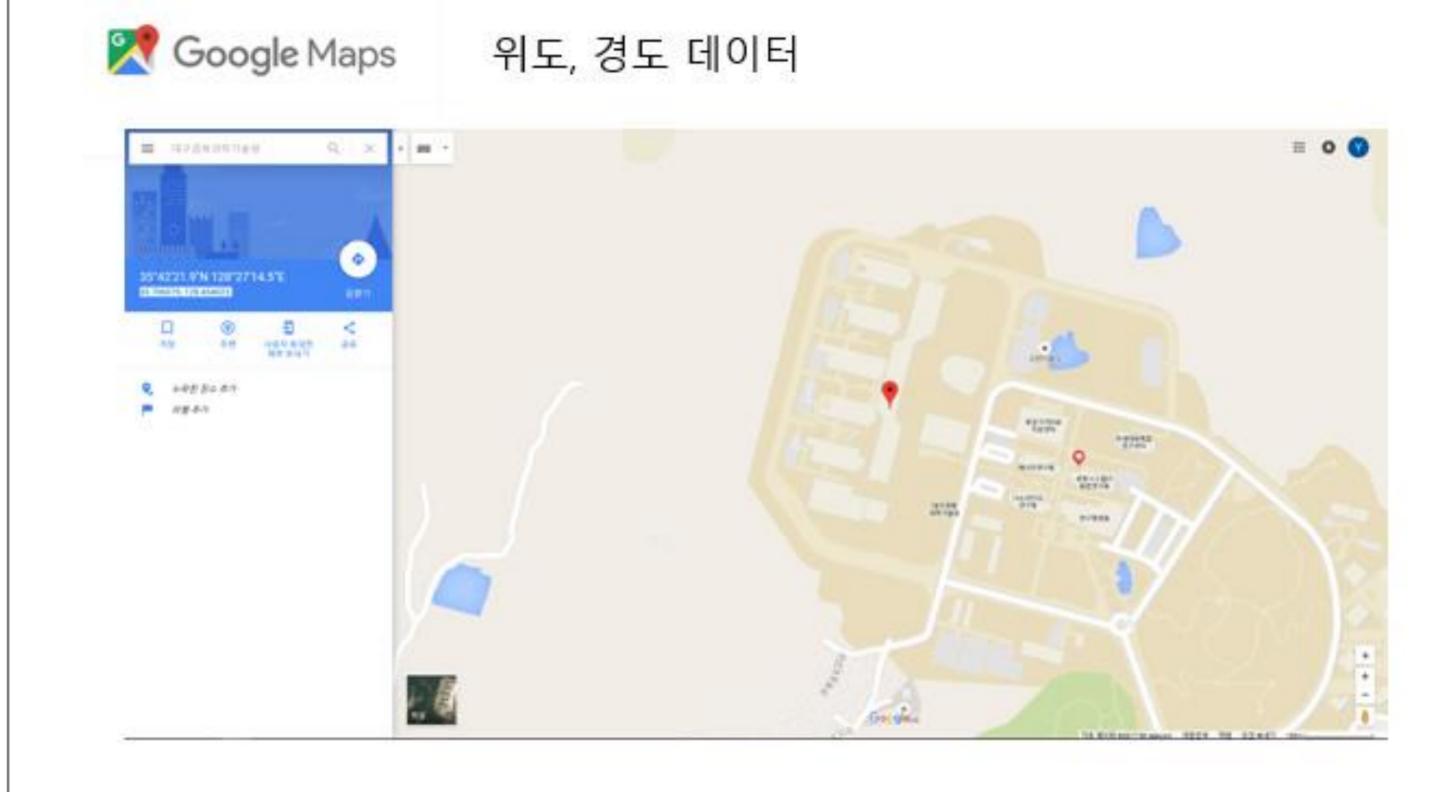


Figure 4. 지역의 위도, 경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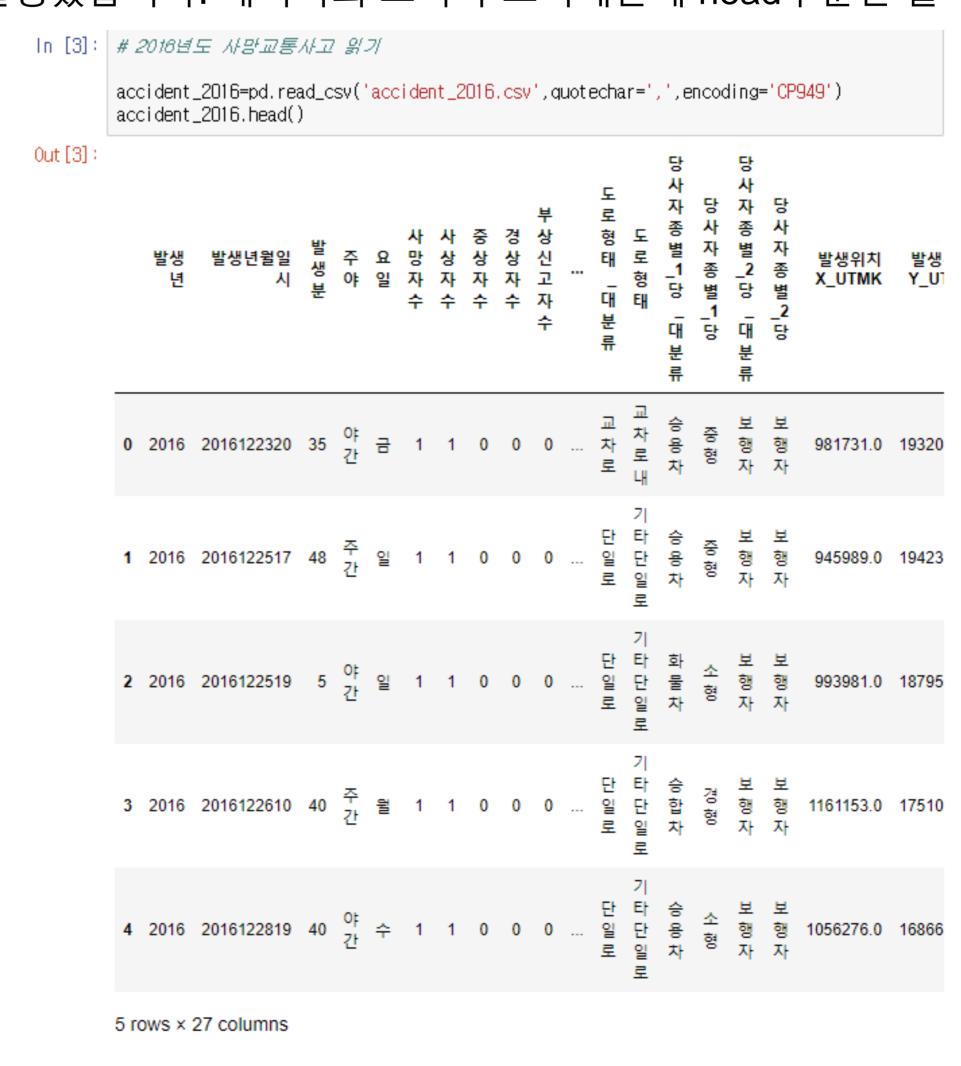
## 데이터분석및시각화과정

#박데이터 그래프 한글 폰트 사용하기.

from matplotlib import font\_manager, rc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font\_location = "c:/Windows/fonts/malgunbd.ttf"
font\_name =font\_manager.FontProperties(fname=font\_location).get\_name()
plt.rc('font', family = font\_name)

먼저 그래프에서 한글폰트 가 적용이 되지 않아 한글 폰트 적용을 했습니다.

1. 공공 데이터포털, 기상청,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데이터셋을 읽고, 출력하는 과정을 먼저 실행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크기때문에 head부분만 출력했습니다.



Team04 남윤철1, 이승훈1, 장용주1\*

<sup>1</sup>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DG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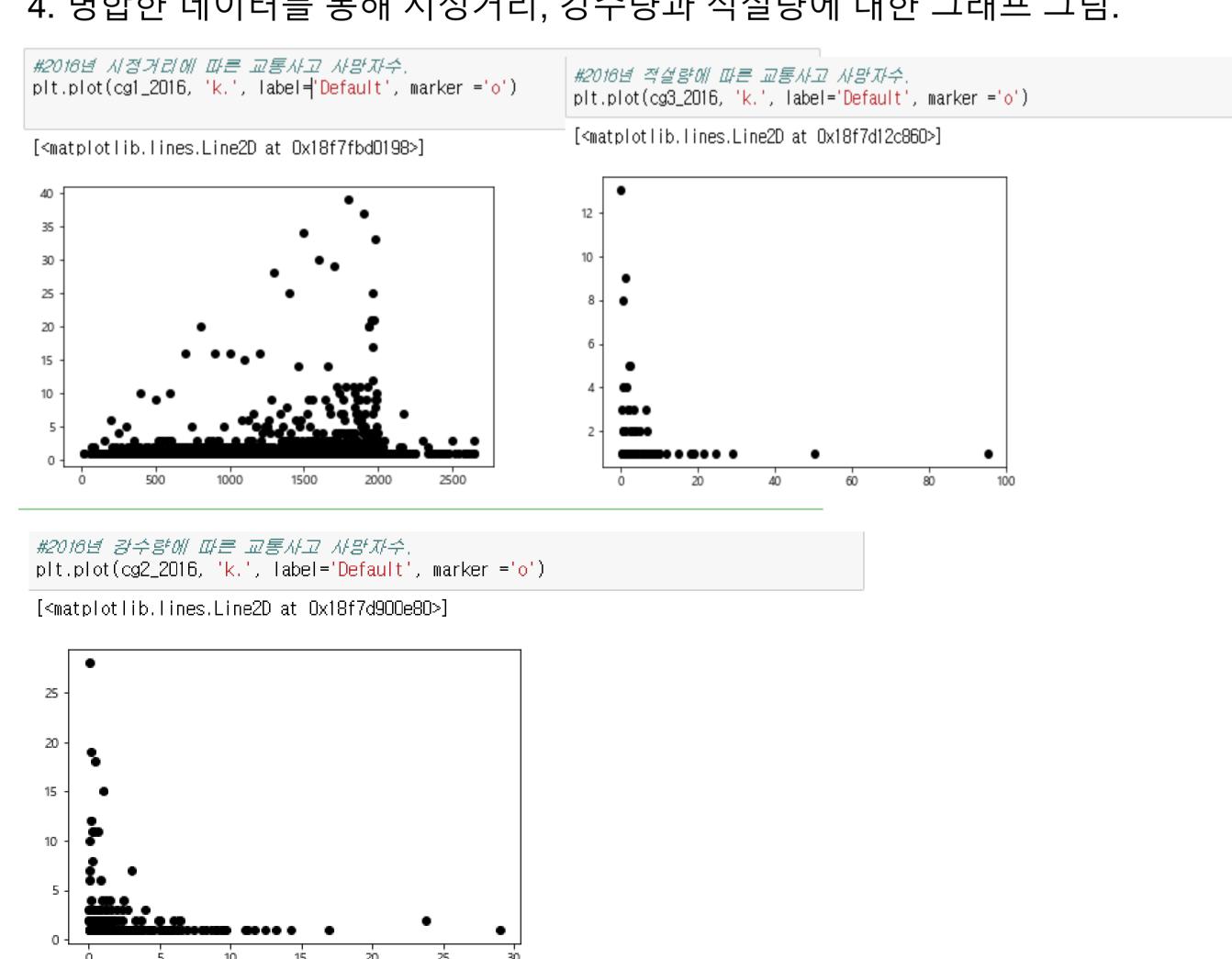
2. 불러온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인 사망교통사고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를 병합하기 위해 교통사고 columns에서 '발생년월일시'를 '일시'로 바꾸었습니다. (columns 값을 일치시켜 병합하기 위함)

```
#2016년 교통사고 columns 에서 발생년월일시를 일시로 반공. -> 데이터 병화을 위함인.
accident 2016.columns=['발생년', '올시기, '발생문', '주아', '요일', '사망자수', '서상자수', '경상자수', '경상자수', '발생지시도', '발생지시도', '발생지시도', '발생지시도', '발생지시도', '발생지시도', '발생지시도', '발생지시도', '발생지시도', '당사자종별 '당', '사고유형 '로분류', '사고유형 '로분류', '사고유형 '로분류', '사고유형 '로분류', '당사자종별 '당', '당사자종별 'S'', '당사자종별 '당', '당사자종별 'S'', '당사자종
```

3. 먼저 병합할 기준이 될 '일시' 칼럼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교통사고의 일시 column 과 날씨 데이터의 일시 column의 형식을 'yyyymmddhh' 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날씨 데이터가 시군구별로 나와있지 않고 지점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점별 발생지시도 로 정리한 'weather\_merge\_key.csv' 로 날씨데이터에 '발생지시도' column을 추가하고 이제 날시데이터의 '발생지시도'와 교통사고의 '발생지시도 '를 merge 하여 두 데이터를 병합하였습니다.



4. 병합한 데이터를 통해 시정거리, 강수량과 적설량에 대한 그래프 그림



시정거리, 강수량과 적설량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날씨와 교통사고 사건 수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 예상하였지만 의미있는 관계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질문에서 강수량이 많을 때와 적설량이 많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비가 오는 날과 눈이 오는 날이 적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설량과 강수량의 데이터를 의미있게 사용하려면 강수량 마다 혹은 적설량 마다 그에 해당하는 일시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속하는 일시에 사고가 난 수를 비교해 본다면 기후와 교통사고의 수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 할 수 있음을 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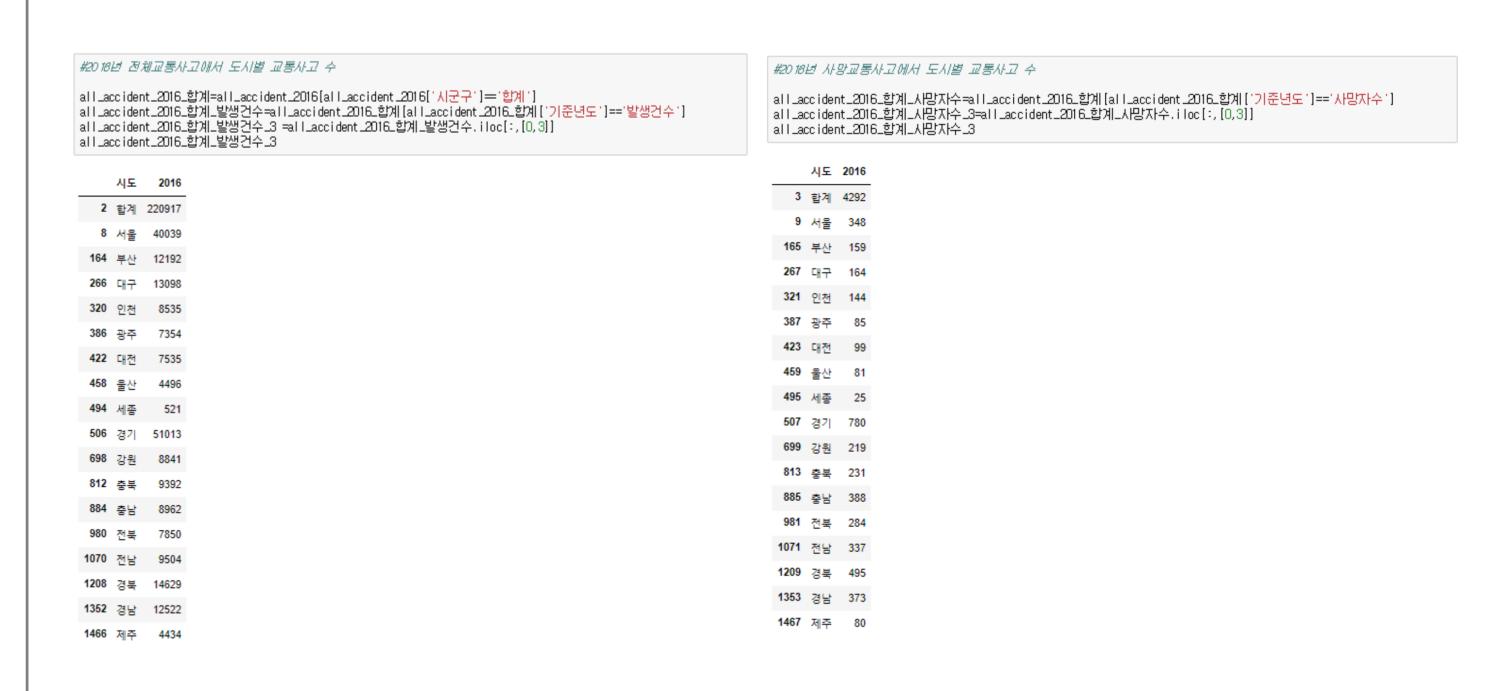
5.교통사고수의 경향성을 알기 위해 연도별 교통사고수 그래프와 연도별 사망교통사고수 그래프를 나타내었습니다.

```
#연도별 교통사고수 그래프
plt.plot(g1,'k—', label='Default', marker = 'o', color='b')
plt.ylim([150000,250000])
plt.xticks([2012, 2013, 2014, 2015, 2016])
([<matplotlib.axis.XTick at 0x18f1450a550⊳,
 <matplotlib.axis.XTick at 0x18f144f9e10⊳,
 <matplotlib.axis.XTick at 0x18f7d82f940>,
 <matplotlib.axis.XTick at 0x18f0effe898>,
 <matplotlib.axis.XTick at 0x18f0eff72b0⊳];</pre>
 <a list of 5 Text xticklabel objects>)
                  2013
                             2014
                                        2015
#연도별 사망교통사고수 그래프
plt.plot(g2,'k—', label='Default', marker = 'o',color='r')
plt.ylim([3000,6000])
plt.xticks([2012, 2013, 2014, 2015, 2016])
([<matplotlib.axis.XTick at Ox18f7f4OfdaO⊳,
 <matplotlib.axis.XTick at 0x18f0f0542b0⊳,</pre>
 <matplotlib.axis.XTick at 0x18f7f320cc0>,
 <matplotlib.axis.XTick at 0x18f0e852b70⊳,</pre>
 <matplotlib.axis.XTick at 0x18f0e848588>]
 <a list of 5 Text xticklabel objects>)
 5000
 4500
 4000
 3500
 3000 -
```

#### 연도별 교통사고수, 연도별 교통사망사고수 분석한 이유

연도별 전체 교통사고수는 딱히 경향성이 없었고,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점점 사망교통사고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망사고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발표(최종 ppt)에 제시했듯이 OECD국가에서 인구별 교통사망사고수가 10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망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 계기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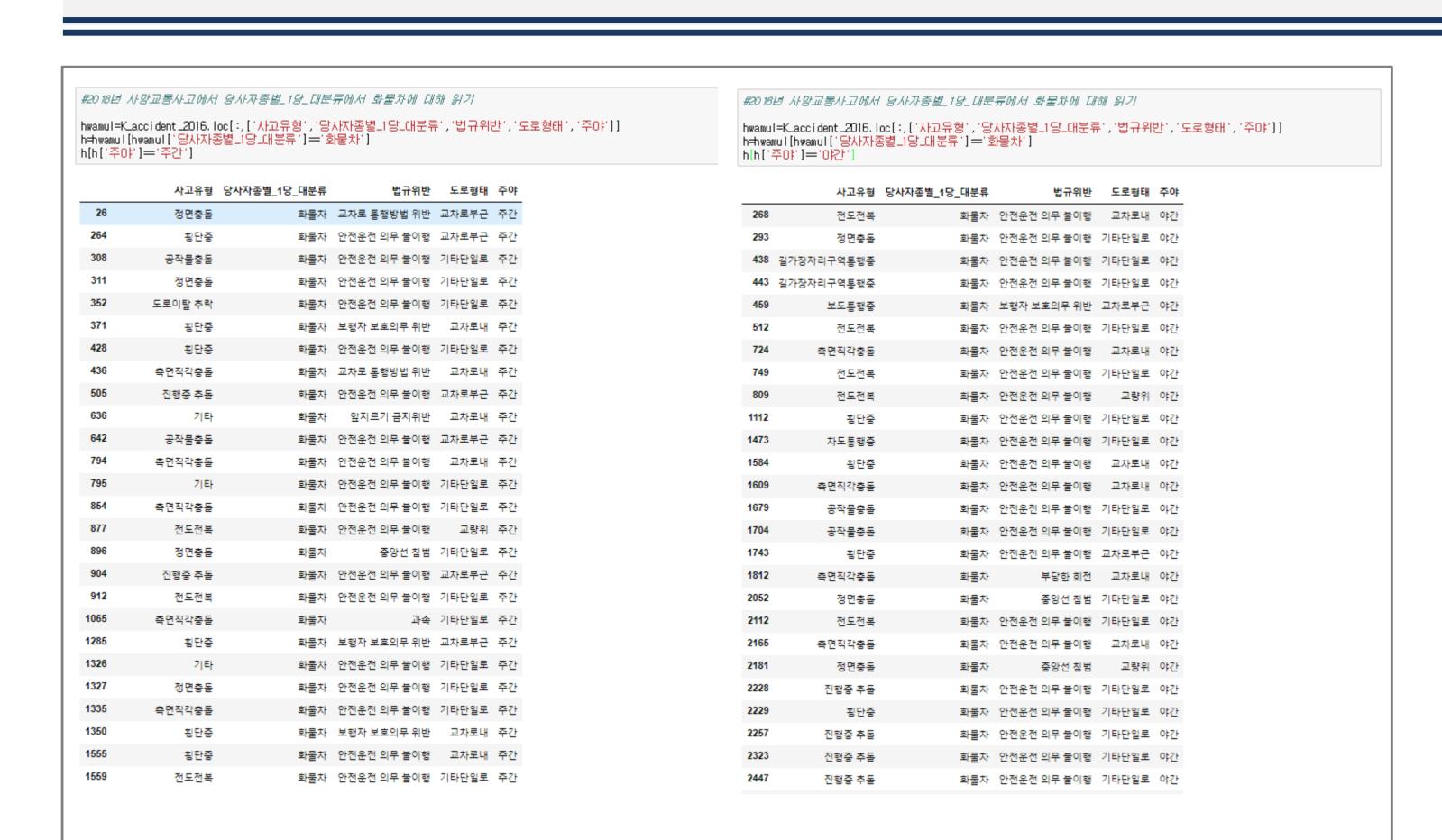
6. 2016년 전체교통사고에서 도시별 교통사고 수와 교통사망사고에서 도시별 교통사고수 데이터를 뽑아내어 특정 도시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역별 교통사고의 수는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가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경북, 대구, 부산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교통사망사고의 수 또한 경기, 경북, 서울 순으로 인구가 많을수록 그 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특정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지역보다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하면 특정한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대형차인 화물차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예상했고, 이에 관한 사고유형, 법규위반, 도로형태, 주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다음장)

Team04 남윤철1, 이승훈1, 장용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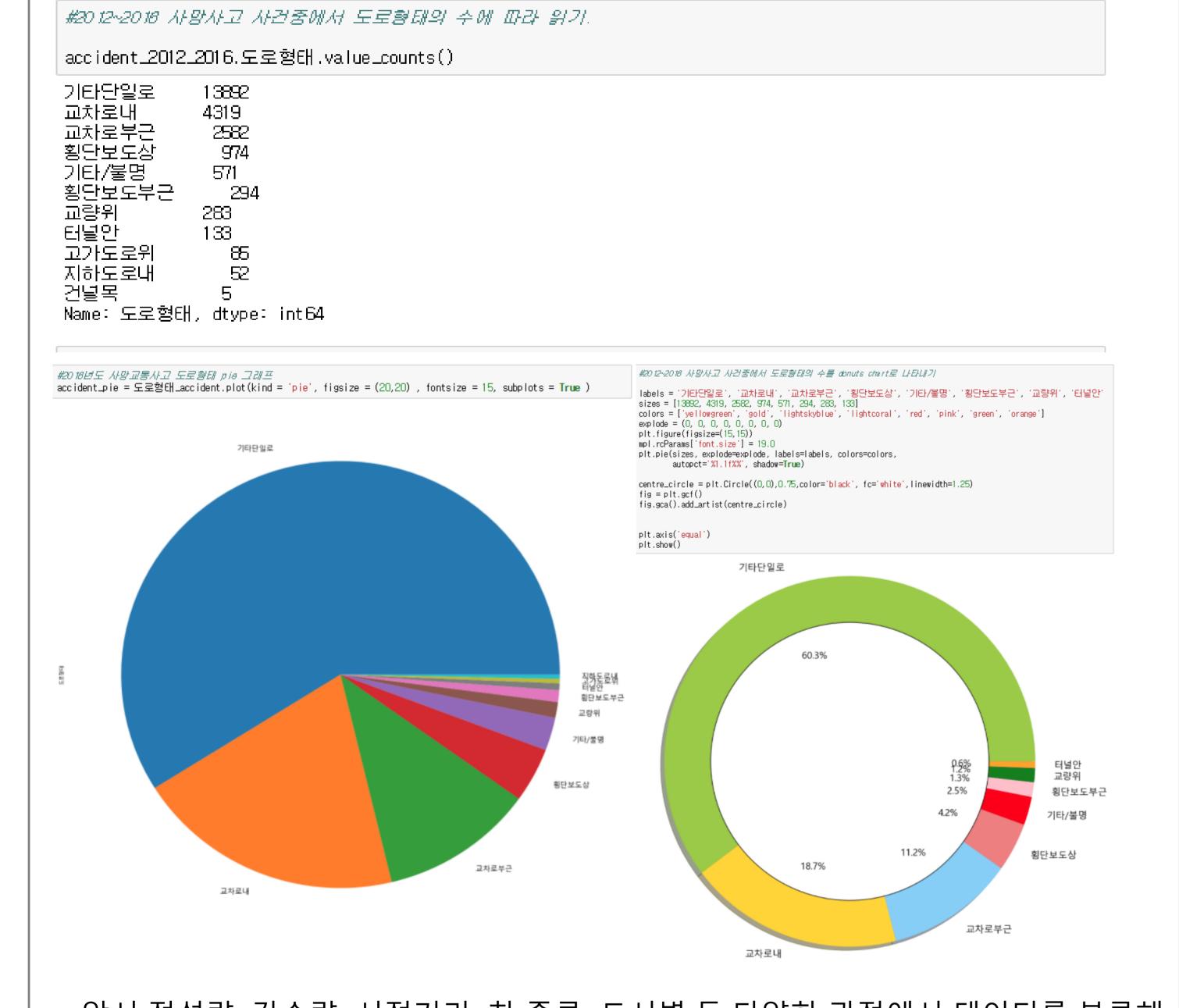
### <sup>1</sup>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DGIST



위의 데이터는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의 야간, 주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야간에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여 야간에 많은 교통사망사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야간보다 주간에 더 많은 교통사망사고가 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별 사고수를 시간대를 나누어 분석한다면 유의미한 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병합하기 위해서 관련 데 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교통량 데이터와 사고를 엮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사고당시 시간과 사고당시 위치입니다. 하지만 교통량데이터에서는 위치정보가 도로번호로 주어져 있고 또한 도로번호는 국도와 고속도로에만 부여된 정보라서 그 의외의 도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없고 또한 도로번호는 사고지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물차, 소형차, 중형차 등 자동차 종류에 대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화물차, 소형차, 중형차의 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각 차종수에 따른 사고 비율을 구하는 방향을 구상해 보았으나, 적절한 데이터 셋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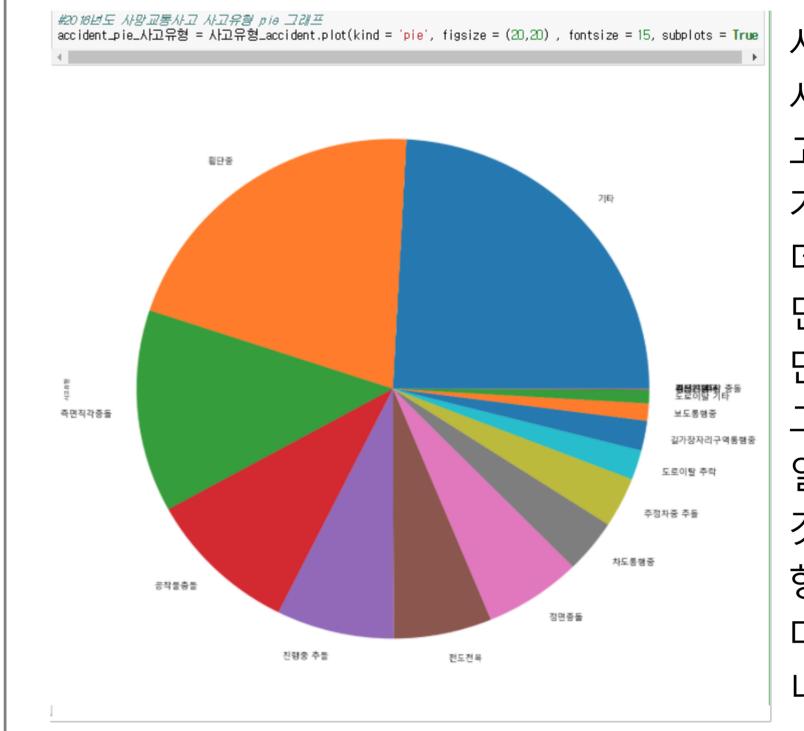
#### 7.사망교통사고에서 도로형태 데이터 및 그래프



앞서 적설량, 강수량, 시정거리, 차 종류, 도시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류해 보았으나 교통량, 자동차 종류의 비율 등 데이터를 엮기에는 접점이 없었어 교통사고 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특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 사망교통사고에서 도 로형태에 대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위의 사진과 같이 기타단일 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차로내, 교차로부근, 횡단보도부근 차례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데이터로는 의미있는 값을 뽑아내지 못했고, 의미있는 데이터를 뽑기 위해 사고유형별로 데이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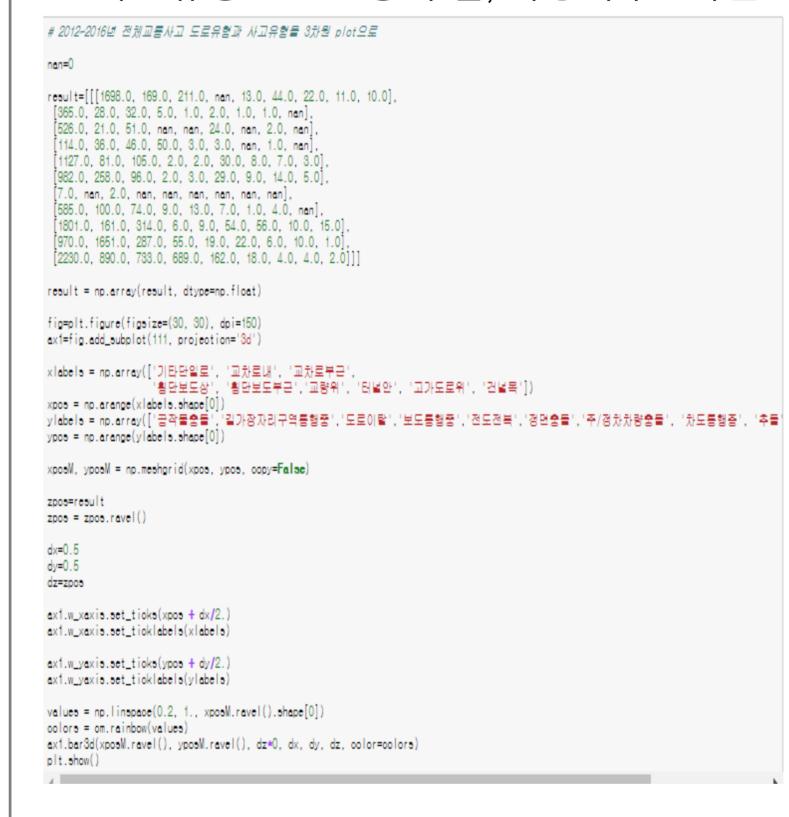
#### 8.사고유형별 사망자수 데이터 및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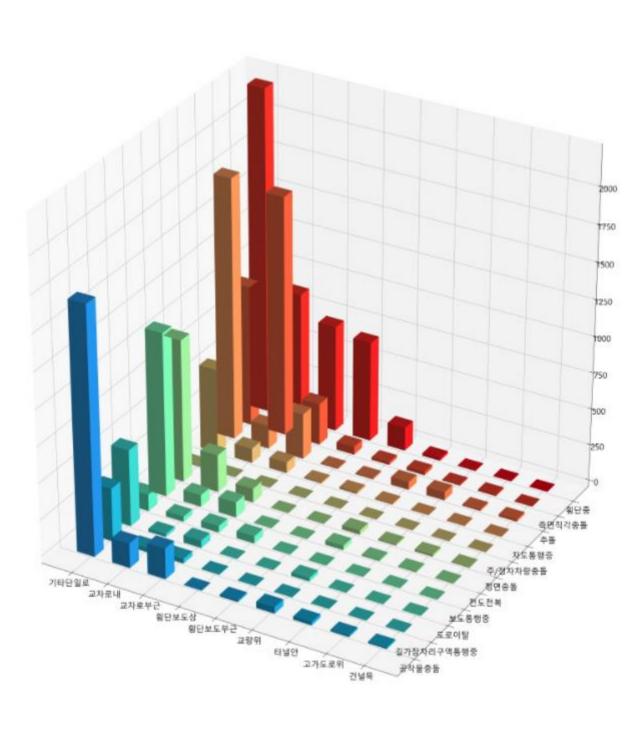




사고유형별로 사건수 분석을 해본 결과 사건유형으로는 기타사건이 제일 많았 고,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횡단중 일때 가 제일 교통사고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데 앞서 분석한 도로형태별 사건수를 보 면 전체 사건 중 단 4.2%(974건)만이 횡 단보도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횡단중 일때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했고, 도로 형태와 사고유형을 묶어서 분석하면 의 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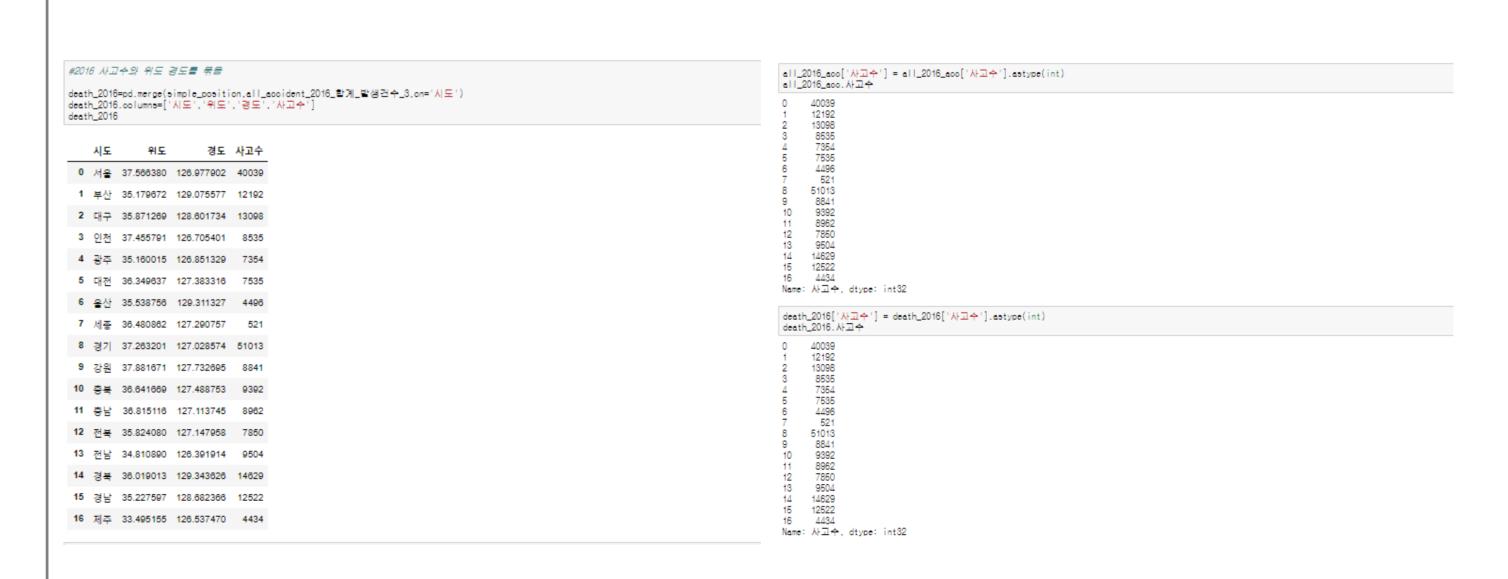
#### 9.사고유형 & 도로형태 별, 사망자수 3차원 그래프





위의 3차원 그래프는 도로형태와 사고유형을 엮은 데이터의 교통사망사고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도로형태는 기타단일로, 사고유형은 횡단 중일 때가 아주 많은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고가 어디서 발생하는 지 Bubble map과 Dot map을 나타내어 확인한다면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에 대해도로형태를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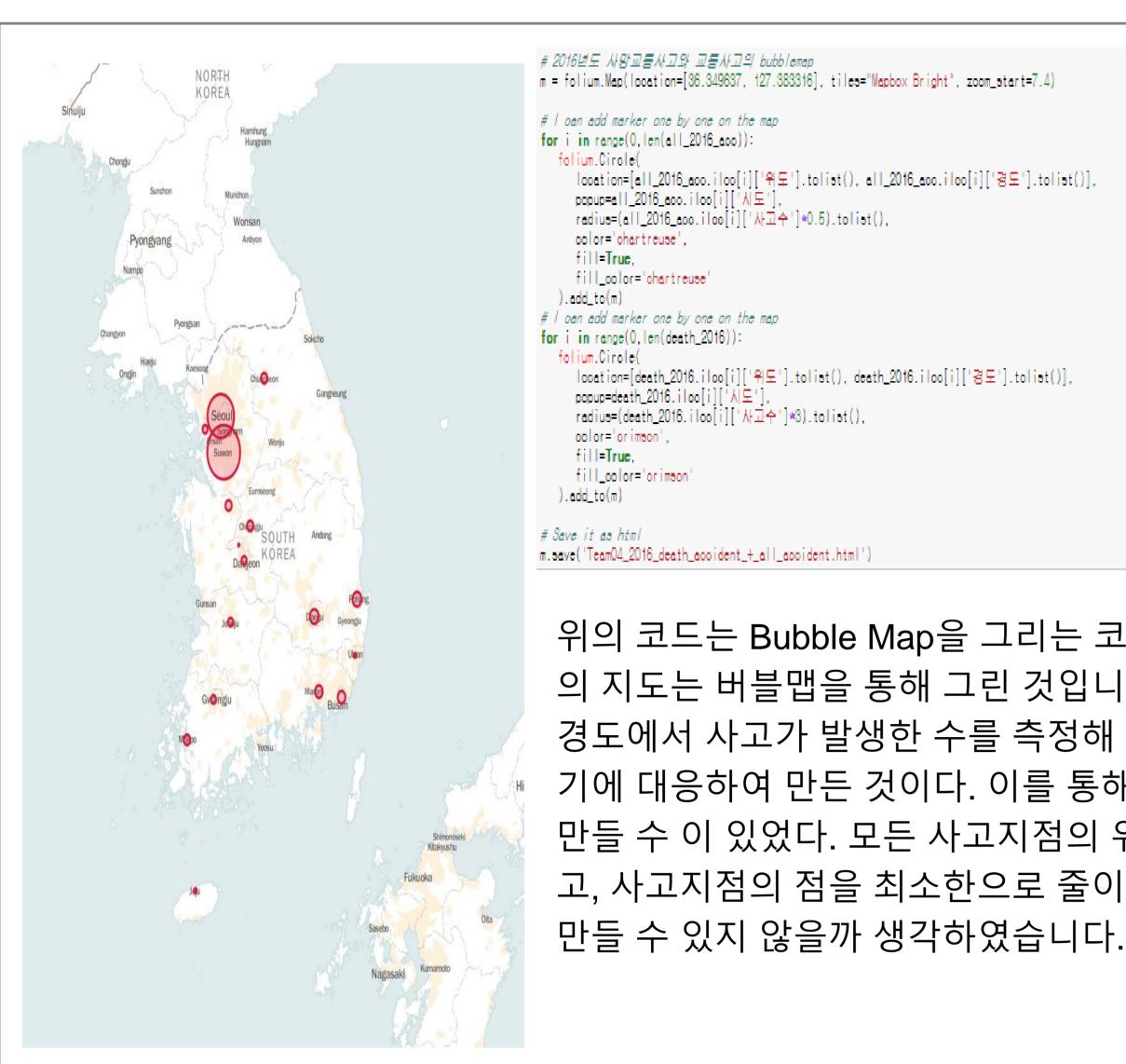
#### 10.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도시 별 Bubble Map



Bubble Map을 사용하기 위해 도시 별 위도, 경도, 사망자수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astype을 통해 형변환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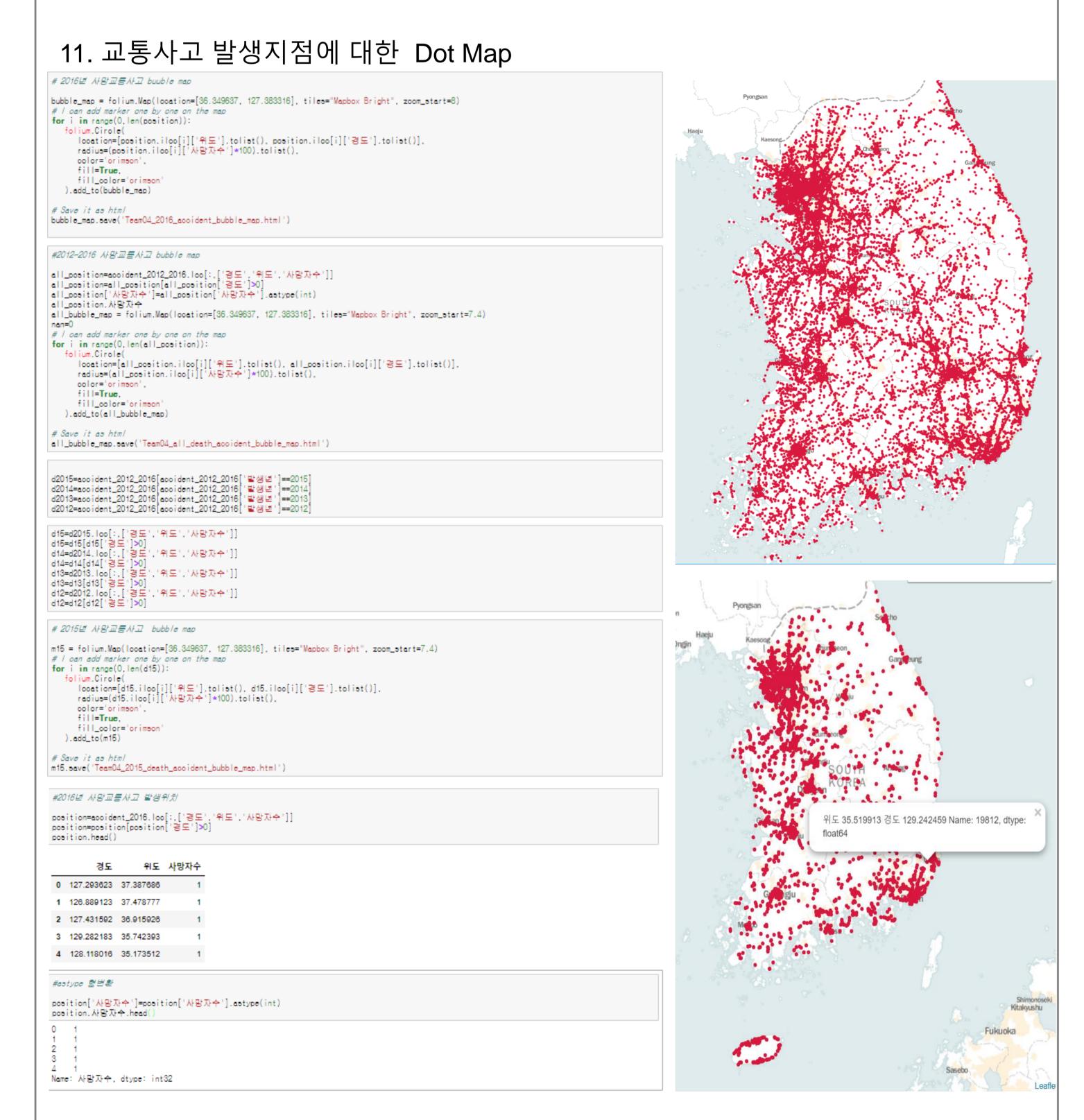
Team04 남윤철1, 이승훈1, 장용주1\*

<sup>1</sup>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DGIST



```
m = folium.Map(location=[36.349637, 127.383316], tiles="Mapbox Bright", zcom_start=7.4)
      | location=[all_2016_acc.ilcc[i]['위도'].tclist(), all_2016_acc.ilcc[i]['경도'].tclist()],
      location=[death_2016.ilco[i]['위도'].tolist(), death_2016.ilco[i]['경도'].tolist()],
```

위의 코드는 Bubble Map을 그리는 코드이고, 왼쪽 의 지도는 버블맵을 통해 그린 것입니다. 특정 위도, 경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수를 측정해 이를 원의 크 기에 대응하여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Dot map을 만들 수 이 있었다. 모든 사고지점의 위도 경도를 찍 고, 사고지점의 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Dot map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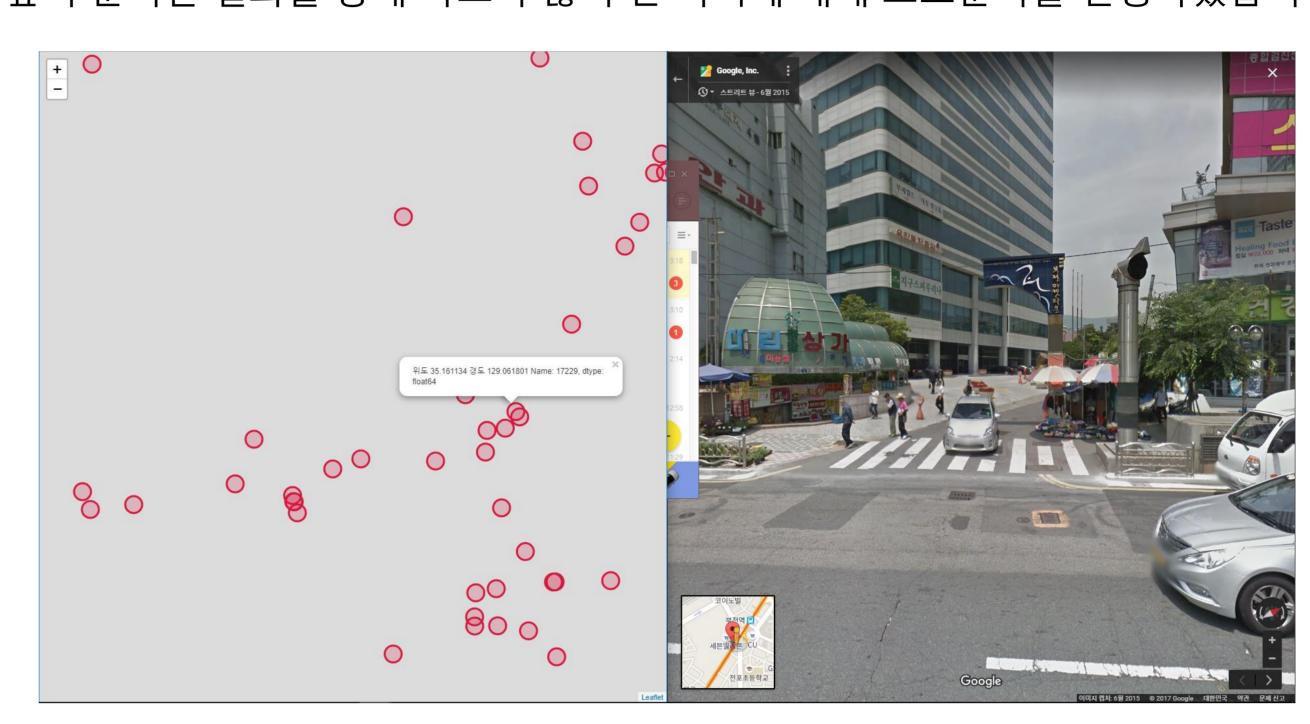


위의 코드는 기존의 Bubble Map을 통해 원의 크기를 줄여 만든 코드와 Dot Map입 니다. Dot Map에 있는 점을 누르면 위도, 경도를 알 수 있도록 설정해두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를 확대한 후 같은 위도, 경도에 점이 여러 개 찍혀있다면 이는 그 도로에서만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도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고, 개선점에 대해서 분석해보려 한

실제로 확대하여 보면 같은 지점에서 원 두 개 겹친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점에 교통사망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면 그곳에는 지역적 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세 번 이상 겹치는 경우 의 수를 세고 각 지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로드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였습니 다.

### 분석 결과 및 대응 방안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사고가 많이 난 지역에 대해 도로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일로	기타단일로	승용차	경형
야간	과속	단일로	기타단일로	승용차	중형
야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일로	기타단일로	승용차	중형
야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일로	횡단보도상	승용차	중형
야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일로	기타단일로	승용차	중형

Dot map을 토대로 찾은 이 지역은 총 5개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의 사진을 보면 교차로 앞 시야를 방해하는 노점상과 큰 나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안보일수도 있으며 차를 운전하는 사람 또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는 차가 과속을 하지 못하게 과속방지턱이 있 어야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없어 차의 과속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5개의 교 통사고 중 4가지가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이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야간 에 매우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문제점을 다루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앞 과속방지턱 을 설치하고, 교차로 앞 시야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어두워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 가로등 또한 설치해야 합니

### 분석의의및발전가능성

교통사고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한 결과, 도로유형이 '기타단일 로' 이면사 사고유형이 '횡단 중' 일 때가 가장 많음을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 건의 위치를 지도 위에서 인접한 거리 기준으로 분류해 교통사고가 밀집 발생한 곳을 특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분석의 의의는 특정 유형의 사고나 특정 유 형의 도로에서 사고를 전국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지점들의 지리적인 문제점 을 유형화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장하면 '기타단일 로 '에서 '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특정 도로유형에서 특정 사고유형 이 일어나는 지점의 주변 도로상황을 파악하여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거나 가로등 을 추가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교통사고 데이터의 축적으로 특정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수가 n개 이 상인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작을 통해 모든 도로유형 & 사고유형 별 교통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 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 지점 수와 같이 지역적 정보에 대한 교통사고의 수

를 뽑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